사 설

교구본사 포교실태

불교가 왜 이 세상에 있어야 하는 것인가? 지극히 어리석은 물음 같지만 우리 천만 불자들이 진지하게 한 번쯤 따져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만일 불교가 있는 것보다 다른 종교가 있는 것이 이 세상을 좀더 복되고도 살맛나는 세상으로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래도 꼭 불교를 고집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불교를 믿는 것보다 다른 종교를 믿는 것이 자신의 삶의 질을 좀더 향상시킬 수 있다면 그래도 불교를 믿어야 하는 것인가?

굳이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불교가 이 세상을 살맛나게 만드는 일에 아직도 너무나 소홀하다는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기 위해서다. 아직도 많은 불사들은 불자들끼리의 자위행위에 그치고 있다. 오죽하면 궁극적 신앙대상인 부처님상을 세우는 일조차, "이제는 그런 일 좀 그만 했으면…"하고 의식있는 불자들이 걱정하는 일이 되어 버렸겠는가. 그러한 일 자체야 얼마나 복을 짓는 훌륭한 일이겠는가마는, 우리 이웃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그들의 기쁨을 더해주는 일에 불교계가 너무나도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그러한 일들만이 불사의 대종을 이루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 다원종교의 사회에서 어떤 종교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길은 결국 그 종교가 수행하고 있는 사회적 역할과,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어떠하냐에 달려있다. 이 점에서 불교는 여전히 뒤져있다. '불교의 사회화'라는 구호 아래 그 동안 대사회적인 포교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아직도 불교계의 의식과 수준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이번 조계종 포교원이 실시한 교구본사 포교실태 설문조사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많은 교구본사들이 아직도 정기법회에 의존한 포교에 매달리고 있을 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여러 사회적 봉사에는 거의 눈감고 있다시피 하다는 것이다. 옛날과는 달리 수많은 문자매체와 언론매체를 통하여 좋은 말들을 넘치게 접하는 이 시대에, 법회를 통하여 말을 전하는 소극적 방법으로 불교의 수승함을 드러내고, 또 불자들로 하여금 불교를 통하여 보다 질 높은 삶을 누리게 되었다는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을지를 근본적으로 반성해야 할 것이다.

이런 근심 가운데 부처님 오신 날을 맞으면서 불교계에서 벌이는 몇가지 행사에서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하는 뜻깊은 일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대표적인 일이 '자비의 등 달기' 운동 확산이다. 실직자, 장애인, 북한동포 돕기를 위한 등을 마련하고 있다는 소식은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기쁨을 모든 사람과 함께 누릴 수 있게 하는 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여진다. 아직은 상징적인 운동이겠지만, 이 상징성이야말로 불교계를 바꿔나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부처님 오신날을 기리는 등불 속에 바로 이웃과 대중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담긴다면, 그 빛을 접하는 불자들의 의식 또한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조계종 제4교구 월정사가 9일 산불로 크게 피해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한 자비탁발행사를 벌였다는 소식도 지역의 중심 사찰들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모든 불자들이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몸소 실천하는 삶에서 기쁨을 찾게 되고, 그러한 흐름이 불교계를 바꾸어 '대중과 함께 하는 불교'를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매년 '부처님 오신날'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손모아 기원한다. 또한 종단을 비롯한 주요 사찰들이 이러한 흐름을 일으키는데 더욱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종교편향대책위 '활동개시'

신고전화 '02-7340-108' 공공기관 편향사례등 올 중점분석

종교편향대책위원회가 발족, 활동에 들어갔다.

실천불교승가회 불교인권위원회 등 교계 20여 단체는 7일 조계종 포교원 4층 강당에서 발족식을 갖고 공동대표에 원혜스님(포교원 포교부장)과 송강스님(서울 미타사 주지)을 추대하는 한편 종교편향 사례 접수 전화를 자비의전화 사무실내에 개설했다. 전화번호는 02-7340-108번으로 24시간 가동된다. 사무국장에는 전국불교운동연합 정책국장 손상훈씨가 선임됐다.

대책위는 올해 군부대 학교 행정기관 신문·방송 등 사회적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져야 하는 기관이나 기구에서 일어나는 종교편향 사례의 대책 마련에 주안점을 두기로 하고 △공공기관의 종교편향 사례 접수창구 개설 △실사와 분석을 통한 적절한 대응조치의 기준 마련 등을 전개키로 했다. 대책위는 이날 공공기관 종교편향 사례접수 안내 스티커 5천장을 제작, 교계 주요단체에 배포하고 홍보활동에 들어갔다.

〈정성운 기자〉

예수부대 발언 파문 해병사령관 경질

'예수부대' 발언으로 불교계의 반발을 샀던 전도봉해병사령관이 임기 2개월을 남기고 경질됐다. 후임에는 이갑진중장이 7일 임명됐다.

종교편향대책위 손상훈 사무국장은 9일 "이번 인사와 관계없이 국방장관의 면담 요구는 유효하다"고 말했다.



◇종교편향대책위가 7일 발족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동화사주지 추천자에 성덕스님

10일 산중총회 경선…총무원장 임명 남아

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 후임주지 추천자로 성덕스님이 선출됐다.

10일 오후 1시30분부터 동화사 심검당에서 실시한 후임주지 추천자 경선에서 성덕스님은 전체 투표인 1백9명중 49표를 얻어 후임주지 추천자로 확정됐다. 이로써 후임주지 취임은 조계종 총무원장의 임명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10일 경선에는 현주지 무공스님과 철웅스님(성전암), 성덕스님(송림사주지), 선봉스님(보현사주지)이 경합을 벌였다. 경선에 나섰던 지성스님(보현신협이사장)은 10일 오전 후보를 사퇴했다.

경선 과정에서 철웅스님이 '후보사퇴서'를 제출했다가 다시 철회서를 제출, 사퇴서 수리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었다.

이번 동화사 주지 추천자 경선은 조계종 개혁이후 처음 치뤄져 세간에 상당한 화제로 떠올랐으며 '과연 경선제도가 필요한가'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았다. 〈관련기사 21면〉


◇성덕스님

"태고종 총무원 선암사이전 부당"

교구본사주지모임 "조계종 입장 밝혀야"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교구본사주지모임(회장 설조)은 태고종이 분규사찰인 선암사로 총무원을 이전한 것은 부당한 일이며 이에대해 조계종 총무원이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교구본사주지모임은 6일 하동 쌍계사에서 11개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이 참가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종단현안문제에 대한해 논의했다. 주지모임은 "선암사는 오랜 분규가 지속되고 있는 사찰로 재산은 조계종 소유인데 태고종측이 점유권을 차지하고 있어 순천시장이 재산관리인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태고종이 총무원을 옮긴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에대한 조계종 총무원의 입장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지모임은 선학원 문제와 관련 "선학원이 창립정신을 살려 원상태로 돌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주지모임은 또 현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구조조정 7인 위원회(위원장 법장, 간사 증원)를 구성했다.

"불교자주화 성과" "종단역할 답보"

실천승가회등 3단체 '개혁종단 4년' 좌담

조계종개혁 4주년을 맞아 실천불교전국승가회, 한국불교기자협회, 전국불교운동연합 주최로 8일 조계종 포교원 회의실에서 기념좌담회가 개최됐다.

패널로 참석한 현응스님(前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은 "개혁종단은 종단의 인사·행정·재정 등 제반 행정과 제도를 쇄신, 불교자주화 및 수행가풍 진작과 정법종단 구현을 위한 입법적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성과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지홍스님(실천불교전국승가회 부의장)은 "교구본사 분담금 납부, 예산회계법 등의 입법활동을 통해 재정의 투명성과 종단안정의 단초를 마련한 것은 사실이지만 총무원 중앙종회 본사주지의 역할수행과 의지부족, 승가정신의 회복에 대한 노력 부족"을 지적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민주화된 제도를 바탕으로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종회의원들의 훈련·훈습과 종회의원 활동을 감시, 평가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초파일 사찰방화 예방 최선"

김세옥 경찰청장, 월주스님 예방서 밝혀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을 예방한 김세옥 경찰청장.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사찰의 방화와 주변 방범 활동이 강화된다.

김세옥 신임 경찰청장은 7일 오후3시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을 방문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사찰주변의 방범과 사찰방화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월주스님은 "지난해까지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수차례씩 사찰 방화가 있었다"며 특별한 관심을 주문했다.

이에앞서 김광식 서울경찰청장도 6일 월주스님을 방문해 "올해는 한건의 방화사건도 없이 부처님 오신날을 맞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서울지역 사찰 주변의 방범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북한산등 사찰인근의 파출소에 각별한 방범활동을 당부했다.

北에 옥수수심기운동 조계종 1천만원 전달

조계종 총무원은 '북한 옥수수심기 범국민 운동'에 적극 참여키로 하고 8일 북한옥수수심기 범국민운동 성금기탁행사에 북한지역 토양에 맞는 슈퍼옥수수 종자 개발을 위한 성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

경부고속철 경주 안거친다

정부 "대구-부산 직선화"

경부고속전철 대구-부산 구간이 직선으로 건설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5일 "서울-부산간 고속철도 건설을 계속 추진하되 경주역사 건설을 백지화 하고 대구에서 밀양을 거쳐 바로 부산으로 직선화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4·10 승려대회 4년 6개단체 기념법회

4·10승려대회 4주년 기념법회가 10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됐다. 조계종 총무원이 주최하고 선우도량 실천불교전국승가회를 비롯한 교계 6개 단체가 주관한 이날 법회에는 월주(조계종 총무원장) 설정(중앙종회 의장) 청화(실천불교전국승가회 의장)스님 등 2백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박구원



사랑이 많이 필요할 때입니다

알솜 Alsom은 수맥·전자파 차단과 단열을 동시에 해결!

수 맥 파

수맥이란 지층을 따라 땍상으로 흐르는 지하수를 말합니다. 수맥은 마치 인간의 혈관과 같아서 지하 깊숙한 곳의 미세한 물줄기 들이 모여 거대한 흐름을 만들고 섬없이 순환하고 있습니다. 수맥에서 발산되는 자력의 자체 운동의 결과, 수맥이 흐르는 곳의 수직 상방으로 파괴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 지표사이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그 틈으로 수맥파가 위로 발산되어 가공할 피해를 주게됩니다. 건물은 균열이 가고 지반은 무너집니다.
당연히 신체도 그영향으로 많은 피해를 입게됩니다. 수맥파의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때는 우리가 잠을 잘때와 같이 움직이지 않을 때입니다.
하루 1/3이 수면시간이고 일하는 시간까지 수맥파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면 그 피해는 더욱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자 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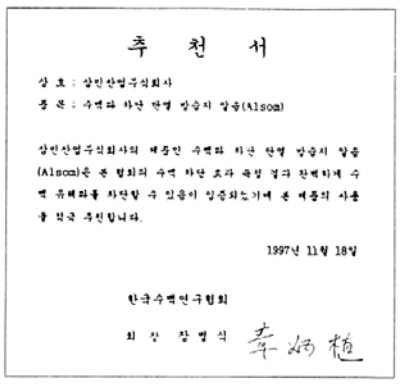
전자파도 우리가 알고있는 것 외에 인체의 아래로 수맥이나 보일러 파이프, 건축물의 철근, 전기장판등 주변 전도체 ㊀가 위치하고 인체의 위쪽으로는 주변을 지나는 고압전선과 천정의 가정용 전선, 전등, 철근 등 위쪽 전도체판 ㊉이 위치하여 하나의 축전지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이 전기장 안에 우리 인체가 장시간 노출된다면 신체상의 변화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단열방습

바람직한 난방 형태는 바닥은 따끈하고 상층 공기의 온도는 다소 낮은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등의 공동 주택 내에서는 위층의 난방열이 아래층의 천정으로 내려오는 기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엄손실은 물론 아래층에는 바닥과 천정쪽의 온도가 같아져 머리가 밝지 못함 뿐더러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알솜(Alsom)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동시에 해결함으로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 드림은 물론 시공도 간편하여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알솜 Alsom** 은 고순도 알루미늄과 복합소재를 사용하여 개발한 혁신적인 **신개발 제품**입니다.
● **알솜 Alsom** 은 **수맥·전자파**를 차단하고 **단열**과 **방습**을 동시에 해결합니다.
● **알솜 Alsom** 은 뛰어난 열반사율로 **냉,온열**과 **습기**를 효과적으로 차단시켜 **연료비**가 현저히 **절감**됩니다.

알루미늄, 동판을 사용한다고 모두 수맥파가 차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순도와 두께가 일정이상이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알솜Alsom 은 수맥, 전자파 차단에 완벽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빌라 등 신축시 사용하면 완벽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추 천 서

상 호 : 삼민산업주식회사
품 목 : 수맥파 차단 단열 방습지 알솜(Alsom)

삼민산업주식회사의 제품인 수맥파 차단 단열 방습지 알솜(Alsom)은 본 협회의 수맥 차단 효과 측정 결과 완벽하게 수맥 유해파를 차단할 수 있음이 입증되었기에 본 제품의 사용을 적극 추천합니다.

1997년 11월 18일

한국수맥연구협회
회 장 장 명 식 (인)

수맥차단효과 측정 추천서


시 험 검 사 결 과
TEST RESULT

전자파 차단 시험결과서

알솜의 종류 및 용도

알솜1000 ▸ 수맥, 전자파 차단과 단열·방습!
용도 모든주택, 아파트등의 각종 신축 건축물의 난방 파이프
바닥의 벽체, 천정, 기존 건축물의 장판 밑에나 각종 침대

알솜500 ▸ 수맥, 전자파, 단열, 방습차단!(좁기고 부드러운 재질로 모든 아트월 제품으로 0.5mm 간편함)
(소비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트월 업기본다름) 규격 1.2×1.9m 1.4×2.0m
용도 보일러 전기 장판, 침대 위, 아트리스(병원 침상 등), 테트 깔개

알솜300 ▸ 단열, 방습, 방음, 충격완화(재질 사이에 에어캡 층 삽입으로 가볍고 사용폭이 다양함)
용도 냉·온열 차단과 방습, 방음이 필요한 모든 건축물과 단열, 방습이 필요로하는 제품에 간편하게 사용 할수 있음.

알솜100 ▸ 단열과 방습(가격이 저렴한 제품)
용도 모든 주택, 빌딩 천고등 건축물의 상·하 벽체 천정에 사용



제조원
SAMMIN 삼민산업주식회사
본사·공장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91-8
(시화공단 4나-109호)
TEL :(0345)498-5533(代)
FAX :(0345)498-8998